

프랑스의 창조도시정책: 낭트의 창조도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배준구*

Creative City Policy in France: Case studies on Cre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s of Nantes

Jun Gu Bae*

요약 : 이 논문은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성을 살리는 도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을 거둔 프랑스 낭트(Nantes)시의 창조도시 개발사업 사례(추진과정, 거버넌스,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낭트는 조선소의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하였다. 낭트의 창조도시사업은 약 20년간 추진되었는데 성공적 경제전환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낭트는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유럽 프로젝트 참여와 더불어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참조하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낭트 고유의 모델을 모색하였다. 낭트는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규모와 여건에 맞게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하고, 명확한 목표와 역동적 협동 작업에 초점을 두면서 도시와 문화 프로젝트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낭트는 쇠퇴한 지구의 재생을 위해 건물이나 공간을 창조적으로 바꾸고,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을 창출 또는 유치하였다.

주요어 : 창조성, 창조도시, 창조산업, 창조지구, 도시재생, 낭트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creative city development case of the Nantes City in France focused on vitalizing creativity by urban regeneration and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reflecting on process,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the Nantes case. The Nantes City tried to overcome its regional economic depression caused by closing shipyard through its creative city program. The Nantes creative city program has been maintained for 20 years, which succeeded in both transforming economic structure of the Nantes city and improving the image of it. As a result, the Nantes city is regarded as a best city for living in France. It established own city model by participating in European projects, referring to cases of other cities and adopting specialists' views. In the process of creative city, the Nantes distinguished itself from other cities in sizes and circumstances and devoted itself to interactions between the city and culture projects, focused on clear objectives and dynamic co-works. In addition, the Nantes changed creatively buildings and spaces to regenerate deserted regions, and established some high value-added creative industry on the basis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Key Words : creativity, creative city, creative industry, creative district, urban regeneration, Nantes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3047971)

*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교수(Professor, School of Law,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tics, Kyungseong University, jgbac@ks.ac.kr)

<http://dx.doi.org/10.23841/egsk.2016.19.4.616>

1. 서론

프랑스는 1970년대 2차에 걸친 오일쇼크를 계기로 산업화에 앞선 유럽과 북미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석탄광업, 섬유, 조선, 제철 등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선도하던 공업 도시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조업중단, 공장 폐쇄로 실업자가 늘어나 도시경제가 붕괴되고, 산업화 당시에 조성된 시설 및 공장 등이 유휴화되어 '탈산업화'로 도시들이 위기에 직면하였다.

선진 공업국의 주요 도시들이 공통으로 겪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창조성'이란 개념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창조도시(creative city)'란 개념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인간의 '창조성(creativity)'에 기초하여 도시를 재개발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andry & Bianchini, 1995; Landry, 2002; Landry & Hyams, 2012).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Florida, 2002). '창조성'이란 개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 알렌 스콧(Allen Scott, 1984; 2010)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존 호킨스(John Howkins, 2002)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개념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 공업국이 겪고 있는 수준의 탈공업화 문제와 그런 수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과 같은 후발 개발도상국의 부상으로 일부 제조업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 소재한 도심의 전통적 공업지구들이 쇠락하면서 탈산업화 시대에 따른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위와 같은 국내외 정세를 직시하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앞장서서 2009년부터 '창조지역사업'을¹⁾ 추진해 왔고, 2013년에 출

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서울시를 선두로 추진된 창조도시정책은 2000년대 후반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 대부분의 도시들에 확산되게 되었다. 물론 각 도시들은 자신의 역사적, 문화적 및 도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모색했다(최병두, 2014: 610).

프랑스에서는 전통적 도시경제의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성을 살리는 도시정책이 추진되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앞서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정책적 교훈을 얻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성을 살리는 도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을 거둔 낭트(Nantes)시의²⁾ 창조도시 개발사업 사례(사업내용, 추진과정, 주체, 거버넌스, 성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인터넷 및 문헌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일부 내용의 경우 현장 방문(2016년 5~6월)을 통해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과 면담을 하였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창조도시론에 관한 연구

영국의 사회학자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창조도시의 선구자로 1995년에 프랑코 비안키니(Franco Bianchini)와 함께 "The Creative City: Demo"를, 2000년에 단독으로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선진 공업국들이 겪고 있던 도시문제에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였다(임상오, 2008). 그는 창조도시에 대해 도시의 문화예술적 요소가 지닌 창조적 힘을 바탕으로

창조적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시민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유기체적 도시라고 정의했다. 그는 1980년대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공통적 문제점을 진단한 후 창조도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도시의 개성을 갖춘 도시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시사회운동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85)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조성이 필요하고, 문화예술이 창조도시를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며,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커뮤니티가 도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였다. 프랑스의 엘사 비방(Elsa Vivant, 2009)에 따르면 창조 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즉 낙후된 지역(계층)이 부유한 지역(계층)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빈민가를 고급화하는 사람들(gentrifiers)’로 불리는 예술가들은 창조도시 도래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말하였다.

랜드리의 주장은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과 존 호킨스(John Hawkins)의 창조경제론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플로리다는 “*The Rise of Creative Class* (2002)”란 저서를 통해 선진국 경제의 중심은 이제 대량생산체제에 바탕을 둔 제조업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는 랜드리와 같이 창조성이 발휘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창조도시는 창조직업을 갖는 자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3T’, 즉 Talent(재능), Technology(기술), Tolerance(관용)가 풍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의 역동성은 창조계급에 의해 나타나며, 창조계급은 엔지니어,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와 같이 창조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지역이나 국가경제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알렌 스콧은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에 기초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식경제, 서비스 경제가 부각되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cott 1984; 2010). 영국의 호킨스는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2002)”란 저서를 통해 ‘창조경제’란 개념을 제창하였다. 그는 ‘한 사람의 창의성이 개인적이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원천으로써 전 세계의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킨스는 ‘창조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구성되는 전통적 경제체제와 달리 사람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사키 마사유키(2004)는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면서 탈대량 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창조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창조성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의 재발견과 부단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부문과 연계하여 창조도시로서의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상진(2008)은 앞서 언급한 3명의 학자들(랜드리, 플로리다, 사사키)의 주장을 정책적 관점에서 차이(초점, 발전 목표, 도시성장 지향)를 분석하였다. 즉 랜드리는 유럽문화 전통에 따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창조환경의 구성을 바탕으로 낙후도시의 재건에 관심이 많았고, 플로리다는 성장도시와 엘리트주의에 근거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조계급을 통해 실현하려 했으며, 사사키는 중도적 관점에서 문화와 경제효과를 동시를 잡으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신동호(2009)는 창조도시론과 창조산업에 대한 최근의 연구와 정책동향을 기술하고 있다. 이병민(2014)은 창조도시의 지향점과 가치, 해외 도시재생 정책의 내용 비교(UNESCO형, 유럽형, 일본형), 국내의 창조적 도시재생의 성공사례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남기범(2014)은 창조도시론의 전개와 과정, 창조도시의 비판적 성찰과 한국적 함의에 대하여 논하였다. 문미성(2014)은 창조경제가 지역에 실현되는 방식과 창조도시의 세 가지

원천에 대하여 논하였다.

2) 선행연구

프랑스는 전통적 도시경제 쇠퇴와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그 창조성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관심을 가져 왔다. 1980년대 이후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재생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 창조도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창조都市는 대내외 여건변화로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낭트시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선도적으로 창조문화도시 조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낭트의 창조도시정책과 사업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프랑스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진전되어 있다. 즉 카파이 및 멜라(Kpahi et Mella, 2014)는 낭트에 도입된 창조도시의 개념과 모델을 분석하였다. 드라보(Delavaud, 2007)는 낭트의 도시정책 시행에서 문화공간 배치와 네트워크 활용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바르텔(Barthel, 2009)는 창조지구로 선정된 일드낭트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관점에서 도시재생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사고-뒤보루(Sagot-Duvaurox, 2010)는 창조도시 개념의 낭트 발전에의 수용과 조정, 도시 정비 방식으로서 ‘창조 클러스터’ 개념과 아이디어에 의한 도시정책 변화, 네트워크 형성을 분석하였다. 카로(Caro, 2012)는 도시와 문화 사업 간의 상호작용, 낭트의 창조문화도시 조성에서 혼합적 접근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레드레(Léderrey, 2014)는 일드낭트 창조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지리적 근접성의 실태(사회적 상호작용 등)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쉬바레 및 코트라(Chevalley et Kottelat, 2014)는 일드낭트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산업 및 해양 유산의 보존, 이용, 관련 행위자들 간의 협의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낭트의 창조도시 개발사업 사례

1) 프랑스의 창조도시정책

프랑스 창조도시정책은 범부처 지역정책전담기구인 국토균형청(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 CGET, 2014년 4월부터 DATAR가 부처간도시사무처 등과 통합하여 CGET로 개편)와 문화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시(코뮌)는 구체적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광역자치단체인 지역(레지옹)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통적 도시경제의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도시들이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성에 역점을 두는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프랑스는 새로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전통적 문화 분야의 개념보다 문화의 기획, 창조 및 생산 기능들을 결합하는 경제활동으로 문화산업의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다(노준석·정미경·박현아, 2013: 6).³⁾ 창조산업은 문화산업이며, 문화예술 활동이 창조산업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낭트의 현황과 창조도시사업의 변천

(1) 낭트시와 낭트도시권의 현황

낭트는 르와르(Loire)와 에르드르(Erdre) 강이 흐르는 프랑스 서부에 위치하며, 약 50km 떨어진 곳에 대서양해안이 있다. 낭트도시권은 렌느(Rennes), 앙제(Anger), 생나제르(Saint-Nazaire), 라로쉬르용(La Roche Yon) 등의 도시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서 고속도로, 고속전철(TGV), 비행기 등의 연계가 잘 되고 있다. 낭트시는 법적으로 코뮌(commune: 시읍면)이며,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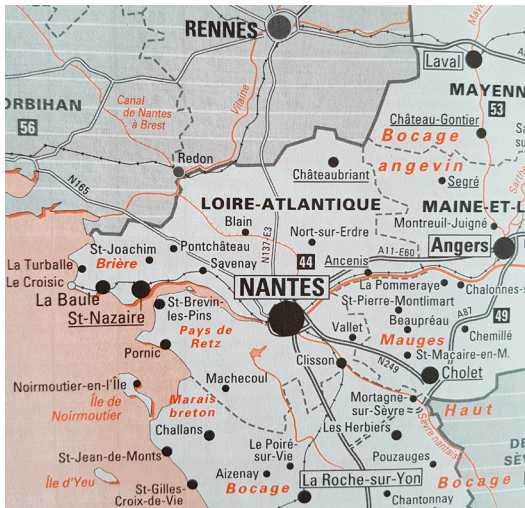


그림 1. 낭트시의 위치도

자료: La Découverte, 2004.

구는 1982년 240,539명, 1990년 244,995명, 2013년 302,614명이다. 낭트시를 포함한 낭트도시권은 24개 코뮌으로 구성되며, 페이 드 라 르와르(Pays de la Loire) 레지옹(지역: 인구 360만 명)과⁴⁾ 르와르-아틀란티크(Loire-Atlantique) 데파르트망(도: 인구 130만 명)에 속한다. 낭트도시권 인구는 1982년 475,229명, 1990년 505,076명, 2013년 609,198명으로 계속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http://www.collectivites-locales.gouv.fr/collectivites-locales-chiffres-2015>).

(2) 창조도시사업의 변천

낭트는 1980년대에 조선소 폐업, 근로자 실직, 도시 쇠퇴, 특히 낭트 중심부의 일드낭트(Ile de Nantes) 서부지구의 쇠퇴로 전대미문의 산업위기에 직면하였다. 낭트시의 관료와 전문가들은 주된 산업 활동이었던 조선소의 폐쇄 후에 남겨진 도시 쇠퇴지구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도시재생과 발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에 시작된 이러한 검토는 지역과 여러 부문(특히 문화)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였다. 낭트시의 지방의원들은

2001년부터 혁신적인 문화관광에 관심을 갖고 낭트가 '브르타뉴 대공성(Ducs de Bretagne) 중심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드낭트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드낭트의 작업장과 공장 부지에 입지할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가 요구됨에 따라 퀘벡문화연구소(bureau d'étude québécois cultura)는 리차드 플로리다에 의하여 개발된 아이디어에 의지하여 2002년에 7개 사업을 평가하였다. 7개 사업은 3개 유형, 즉 첫째는 박물관으로 노예기념박물관, 국립상업항만박물관이다. 둘째는 문화인데 구 조선소의 작업장·연구·주거로의 통합과 활용(과학적·예술적), 과학·기술박물관과 '산업적 모험 범선'의 사업적 연계, 그리고 과학기술문화센터가 이에 속한다. 셋째는 창조인데 동물 모양의 움직이는 대형 기계인 '마신(Machine)' 창작, '화객선(Cargo Solidaire)' 개조 및 이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들의 평가 기준은 전략적 가치, 탐방 경험의 질, 접근방법과 개발, 사회경제적 영향, 고객 이익이 적용되었다 (Barthel, 2009: 8).

낭트대도시연합(Nantes Métropole)을 비롯한 공적 주주들이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대서양도시권정비회사(Société d'aménagement de la métropole Ouest Atlantique : SAMOA)는 2003년에 설립되어 창조기업의 입지정책을 마련하고, 구 알스톰 회사의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였다. 즉 이 공간은 2004년부터 낭트건축학교의 무대설계 부문, 2개 지방텔레비전 방송국, 건축의 집(Maison de l'architecture) 사무실, SAMOA 본사(2007년 신규 건물로 이전까지)로 이용되었다. 이는 모두 점유되지 않고, 반영구적 시설(자동건축, 방갈로 형태)로 되어 입주 단체와 창조기업 간에 경량 칸막이로 구획되었다. 2006년부터 '예술 캠퍼스'라 불리는 창조클러스터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더불어 레지옹미술학교(ERBAN)와 낭트국립고등건축학교(ENSAN)에 의하여 문화예술 교육이 확대되고, 국제 수준의 교육기관 간 상호공조와 교류가 증

대되어 학생수가 2,500명, 연구원이 200명에 달하였다(<http://www.nantesmetropol.fr>; Kpahi et Mella, 32).

낭트는 2001년부터 유럽프로젝트, 즉 '유로시티(Eurocities)' 네트워크, 2003년 도시 쇠퇴지구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Revit 프로젝트(2004~2007년), 2006년부터 '문화기업경제클러스터개발(Developing Economic Clusters of Cultural Enterprises: ECCE)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였다.

한편 1998년에 낭트도시권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설치된 낭트권경제발전사업소(Agence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agglomération nantaise: ADEAN)는 2001년에 낭트메트로폴개발(Nantes Métropole développement)로 변경되었다. 도시 간 협력체인 낭트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de Nantes)는 2001년에 낭트대도시연합(Nantes Métropole)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낭트 대도시연합은 정비·도시계획, 교통, 공공녹지·도로, 환경, 물, 경제발전·훈련, 사회개발, 국제적 도시발전, 에너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http://www.nantesmetropol.fr>). 2015년 1월 1일부터 낭트를 비롯한 대도시연합(Métropole)은 대도시연합승인·지역공공사업현대화법(2014.1.27)에 따라 권한(재개발, 경제발전 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2015년에 낭트메트로폴개발과 낭트·생나제르국제사업소(Agence Internationale Nantes Saint-Nazaire)가 합병하여 낭트-생나제르발전사업소(Agence Nantes Saint-Nazaire Développement)로 바뀌었다.

3) 낭트의 창조도시사업

(1) 일드낭트(île de Nantes) 창조지구

일드낭트(île de Nantes)는 면적이 337헥타르이고, 북쪽에 6개, 남쪽에 4개의 다리로 북쪽 및 남쪽의 강과 연결되고 있다. 일드낭트는 방대한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며, 이 사업은 도시권정비회

사(SAMOA)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창조지구는 90,000m² 사업 면적 중에서 알스툼 홀(Halles Alstom) 내의 39,000m²는 기업(창업, 양성), 대학교(학사 및 석사과정 1,000명) 및 문화창조산업 부문(디자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무대 예술, 건축, 미디어아트: 연구원 및 예술가 100명)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드낭트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경제모델의 중심이면서 문화창조에 적합한 지구로 거론되었다. 낭트에 문화창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시 문화국장, 미술학교 교장, SAMOA 대표, 낭트시 사무총장)이 2006년에 구성되었다. 문화창조산업 클러스터는 3가지 차원(연구, 교육·훈련, 경제 활동)으로 결합되는 목표를 가졌고, 다영역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창조사업은 '레 마신 드 일(Les Machine de l'île: 동물 모양의 움직이는 대형 기계 제작소 관람, 체험)'이나 작업장에 문화시설 설치, 창조기업 부지 개발, 그리고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해 창조지구가 점차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역동성을 갖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1년에 창조지구 클러스터가 설립되었다. 클러스터는 사업 주체와 기업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창조 관련 산업의 조직화 및 활성화 임무를 가지며, 클러스터 추진반(L'équipe du Cluster)은 13명으로 구성된다(<http://www.iledenantes.com>).

창조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레 마신 드 일(Les Machine de l'île)' 프로젝트가 채택되어 움직이는 특이한 기계장치들이 여러 곳에 설치되었다. '대형 코끼리 모양의 타는 기계(Grand Eléphants: 높이 12m, 길이 12m, 52명 탑승), 동물모양의 해저 기계를 타고 대서양까지 이동하는 대형 회전목마(Carrousel des mondes marins: 높이 25m, 300명 탑승) 등이 단지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작업반과 방문객 간 대화를 통해 작업하고, 기구를 타는 체험과 공적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독특한 정체성을 제공하며, 2011년에 방문객이 40만 명에 달하였다. 이 단지에는 옛날에 만든 큰 범선이 보



그림 2. 일드낭트(île de Nantes) 위치도

자료: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Quartiers_de_Nantes.png

존되어 기계 진열실과 제품 작업장으로 이용되며, 새로운 공적 공간이 조성되었다. 당초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던 대규모 재개발 부지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비워두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 빈자리는 공적 공간의 작업장으로 개방되며, 거리 무대 설치를 통해 다양하게 이용된다. 일드낭트 서쪽 공간은 각종 문화시설이 설치되었고, 현대 음악과 미디어 창작에 기여하는 장소인 ‘라 파브리크(La Fabrique)’가 역사적 중심지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실용적 논리는 2003년 낭트대도연합에 의해 매입된 구 알스톰회사의 단지 관리에 적용되어 소기업과 예술가들에게 잠정적 사용이 허용되고, 일정한 기술적 조건 하에 소규모 행사를 위해 제공되었다. 알스톰 부지는 가용 공간의 활용과 도시 변화를 아우르며, 창의적 자율성을 키우는 대표적 사례이다. 일드낭트 쇠퇴지구는 자유로운 창작에 적합한 공간과 분위기를 갖추어 예술가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건축학교, 미술학교, 디자인학교, 특수연구기관, 공장, 미디어 기업(Ouest France, Télé Nantes, FR3), 음악관, 바나나 창고

의 상설 전시관, 그리고 여가 공간(카페, 식당, 무도장)으로 바뀐 르와르(Loire) 강가의 옛날 상품 창고 등은 창조지구에서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Chevalley et Kottelat, 2014: 8-12).

(2) 유럽 프로젝트 참여

낭트에서 창조경제에 의한 위상 강화는 2001년부터 ‘유로시티(Eurocities)’ 네트워크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006년부터는 6개 도시, 이 중 에서 인근 렌느(Renne), 앙제(Angers)와 더불어 문화기업경제클러스터개발(ECCE) 프로젝트에 낭트가 참여하였다. ECCE의 목표는 문화기업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출판의 집, 녹음 스튜디오 등)하는 데 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창조 활동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고, ‘낭트 창조(Nantes Création)’ 단체에 의한 예술·문화·창조 분야의 기업가에게 기술적·논리적 지원에 기여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낭트시는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유럽 프로젝트인 ‘문화기업경제클러스터개발(ECCE)’ 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낭트시가 주도한 ECCE는 문화·창조사업 분야의 소기업들의 혁신과 전문성을 촉진·지원하고, 시민들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에 창설되었다. ECCE는 북서유럽 7개 도시, 즉 프랑스(낭트, 렌느, 앙제), 영국(허더스필드), 독일(아헨), 네덜란드(아인트호벤, 위트레흐트)를 네트워크하며, 각 도시는 공식 지원센터를 발족시키거나 독립된 기관(CIDA)을 파트너로 삼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우선 적용 대상은 소규모 기업, 예술가, 디자이너, 창조산업 종사자 등이며, 그 다음으로 문화와 경제 분야 경영인, 금융인, 투자자, 예술과 경영 분야의 대학 교수와 학생이다. 이 사업은 유럽연합 구조기금인 Interreg의 지원을 받는다. 주로 창조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자원의 개발과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9~2011년에 두 번째 유럽 프로젝트인 문화기업경제클러스터혁신(ECCE Innovation)이 구

성되었다. 이는 창조산업 영역에서 지식과 평가의 교류 및 이전에 집중되고 있다. 낭트가 참여한 세 번째 유럽프로젝트는 유럽문화창조산업연맹(Europea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lliance: ECCIA)이다. 이 연맹의 회원은 낭트를 비롯하여 암스테르담(Amsterdam), 베를린(Berlin), 헬싱키-탐페르(Helsinki-Tampere), 밀라노(Milan), 바르셀로나(Barcelona) 등이 속하고 있다.

낭트는 산업 쇠퇴지구의 재개발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유럽연합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다. 쇠퇴지구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Revit 프로젝트(2004~2007년)가 이에 해당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Stuttgart)는 이에 관한 선도도시로서 낭트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낭트대도시연합은 2003년 4월에 슈투트가르트의 요청으로 도시쇠퇴지구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정책의 확립을 목적으로 '유럽 및 글로벌 상황에서 보다 매력적인 대도시권' 운영프로그램 조치 1.1이라는 명칭으로 PIC Interreg III Nord-Ouest 프로젝트 후보자가 되었다. 낭트대도시연합은 슈투트가르트(컨소시움의 행정 및 재정 조정자)를 비롯하여 네덜란드와 영국의 도시들 및 그들 각각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였다. 낭트의 경우 이 프로젝트에서 낭트도시공동체, 낭트시, SAMOA, 공탁금고(CDC)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유럽연합에 의해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도시쇠퇴지구 관리의 혁신적 방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방 거버넌스, 다기능적 이용과 혼합, 산업유산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통합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환경보호와 생활의 질이 핵심 주제로 고려되었다(Barthel, 2009: 13-14).

(3) 문화행사

낭트대도시권에서 문화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행사들, 즉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에스튀에르 비엔날레(Biennale de l'Estuaire)', 클래식 음악축

제인 '레 폴 주르네(Les Folles Journées)', 야외에서 즐기는 재즈 축제인 '레 랑데부 드 에드르르(les Rendez-vous de l'Erdre)' 등이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해 구상되어 추진되었다. 이러한 문화행사들을 통해 공공행위자들은 창조산업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긍정적 효과를 모색한다. 특히 에스튀에르(Estuaire) 비엔날레의 창시자인 블레즈(Jean Blaise)는 부제를 '예술, 경관, 강'으로 정하고, 강의 하안에 60km에 걸쳐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대중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직화 하였다. 블레즈는 정치적 전략에 의하여 지역의 변화에 역점을 둔 구상을 하였고, 이 축제가 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촉매제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접근방법을 보완 하였다.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활동 영역과 방식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대도시권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일드낭트의 도시개발과 비엔날레 프로젝트가 시너지를 얻도록 협력적으로 추진되었고, 비엔날레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은 도시재생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구상된 사업범위를 초월하였다. 비엔날레 축제는 개최 당일에 4만 명이 참석하였고, 비엔날레 축제 기간에 레지옹현대예술기금(FRAC) 소장품의 경우 7만 5천명이 관람하여 상당히 성공하였다(<http://www.inaglobal.fr/economie/article/article/les-villes-francaises-sont-elles-creatives>). 게다가 레지옹현대예술기금(FRAC), 낭트시립미술학교, 미술관 및 국립극장은 협력을 통해 매년 3개씩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전시회 개최는 도시에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며, 미술관과 거리가 먼 대중과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Caro, 2012: 145).

(4) 거버넌스

2003년 설립된 서대서양도시권정비회사(SAMOA)는 낭트대도시연합 등이 출자한 공기업으로 일드낭트 사업 관리, 낭트-생나제르 대도시권 개발, 창조지구 클러스터 활성화 임무를 수행한

다. SAMOA는 공적 주주(낭트대도시연합 58%, 낭트시 17%, 도의회 5%, 도시공동체 5%, 레지옹의회 5% 등)로 구성되며, 낭트대도시연합과 체계적 연계를 통해 사업정비, 기반시설 공급과 이벤트 등을 추진하였다(<http://www.samo-nantes.fr/en/>).

낭트대도시연합은 명확한 목표와 역동적 협동작업에 초점두면서 도시와 문화 프로젝트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Caro, 2012: 157). 낭트대도시연합은 문화창조 정책의 발전을 위해 도시 간 교류 네트워크 가입, 창조기업 지원 조직 강화, 관련 산업의 활성화 수단을 마련하였다(<http://www.nantesmetropole.fr> Newsletter No.3).

2007년 6월부터 시작된 낭트창조사업소(Agence Nantes Création)는 도시권 문화창조의 진열장이며, 기업 서비스의 관문이다. 즉 문화창조 관련 산업(시각 예술, 공연, 문화산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건축, 유산 등)에 대해 기업가들에게 정보와 방향 제시, 기업 유치 촉진, 문화창조 역량 증진 수단을 제안한다(Béraud et Coremerais, 2012: 207). 낭트-생나제르발전사업소(Agence Nantes Saint-Nazaire Développement)는 국내외 기업·투자·인재 조사, 지원, 지역 활성화·마케팅 임무를 수행한다.

대학들은 사업의 추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통합적 연구연맹을 구성하여 파트너십 교육, 관련기관들과 상호 협력 등을 도모하였다. 특히 Estuaire 비엔날레 축제는 국제무대에서 대학의 역할과 역량 제고가 소중함을 입증하였다(Caro, 2012: 135-136).

4) 창조도시사업의 성과

낭트는 창조성을 살리는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었다. 일드낭트 창조지구사업은 강의 양쪽 연안 정비와 관련이 있는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서두는 것을 피하면서 공적 공간(150ha)을 되찾고, 창

조를 촉진하되 모방을 피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되었다. 즉 낭트는 외국 항만도시(스페인 빌바오, 스웨덴 말뫼)와 규모 및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도시의 역동성과 독창성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공을 하였다(Béraud et Cormerais, 2012: 4).

낭트대도시연합은 공기업인 도시권정비회사(SAMOA)를 설립하여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SAMOA는 창조클러스터 관리와 개발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였다. 문화창조산업 관련 사업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 투자의 집중화를 추구하였고,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확립하였다(Caro, 2012: 145-147; Léderrey, 2014: 51).

낭트 창조도시 모델은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으며, 유럽과 특히 프랑스에서 창조클러스터 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낭트는 오늘날 보다 성공적 경제전환을 보여주는 도시 모델이 되고 있다. 낭트는 20년 동안 문화시설의 고전적인 공급으로부터 수많은 협력을 하는 장소와 행사를 개최하는 역동적 네트워크로 변화되었고, 도시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켰다. 이러한 성공의 원인은 활발한 문화 활동을 통해 도시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고, 다양하고도 밀집된 문화 공급과 선도적 창조도시사업의 추진, 문화 활동 및 공간에 대한 주민의 광범위한 접근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Sagot-Duvaurox, 2010: 2-3; 105-106).

2014년 낭트·나제르권도시계획사업소(AURAN) 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 낭트시는 문화·창조산업에서 36,4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전체 고용의 9%). 낭트는 창조직업 성장의 경우 프랑스에서 툴루즈에 이어 제2위를 보이고 있다(http://www.nantes-developpement.com/files/faits_et_chiffres2012).

프랑스의 르 포앵(Le Point) 주간지(2008.4.24)에 의하면 낭트시는 프랑스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평가에서 세 번(2002, 2003, 2008년) 1위에 선정되었다.⁵⁾ 타임지(Time Magazine)는 2004

년에 낭트시를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언하였다. 이는 낭트시에 녹지공간과 수많은 하천이 있고, 시의 역동성, 문화 및 창조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http://www.frenchmoments.eu/nantes-pays-de-la-loire/>).

'유럽연합의 낭트도시권 프로젝트'에 대한 2007년 Edater 연구소의 최종 평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낭트의 참여 비용은 70억 유로인데 세계 프로젝트에 대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은 280만 유로로 참여 비용에 비해 훨씬 적어 지렛대 효과를 달성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유럽프로젝트 참여는 유럽무대에서 낭트의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6년 2월에 낭트에서 개최된 '유럽 만남' 행사는 참가자 중에서 25%가 다른 나라에서 참여하였다. 이 행사가 기업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긴 어렵지만 관련 단체들과 창조도시사업 추진자들은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만족하

고 있다(Barthel, 2009: 14).

낭트의 창조도시 개발사업 사례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4. 결론과 시사점

프랑스는 전통적 도시경제의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도시들이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성에 역점을 두는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낭트는 조선소의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하였다. 낭트의 창조도시사업은 약 20년간 추진되었는데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성공적 경제전환을 보여주는 도시 모델이 되고,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Sagot-Duvarox 2010: 2-3), 각종 조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표 1. 낭트의 창조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낭트 중심부인 일 드 낭트(Ile de Nantes) 쇠퇴지구 재생사업 - 구 알스토희사 부지·건물에 창조기업 입지 - 캠퍼스라 칭하는 창조클러스터 구성과 교육 확대 - 유럽프로젝트(Eurocities 네트워크, Revit, ECCE) 참여
추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조선소 폐쇄 후 도시 쇠퇴지구 검토, 2002년에 7개 프로젝트 평가 - 도시권정비회사(SAMOA) 설립, 창조기업 입지정책 마련, 공간 활용 - 2001년부터 유럽프로젝트 참여, 2006년부터 '예술캠퍼스'라 불리는 창조클러스터 구성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권정비회사(SAMOA)가 주체로서 사업관리 - 낭트대도시연합은 문화·창조정책 마련과 사업 지원, 도시 간 교류 - 낭트창조사업소는 문화·창조관련 산업 지원과 역량 제고 - 대학들이 교육과 사업에 협조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주주(대도시연합, 시, 도, 지역 등) 출자 공기업(SAMOA)이 주도 - 대도시연합이 정책 마련과 사업지원 - 낭트창조사업소와 낭트·생나제르발전사업소가 투자와 기업 지원 - 대학들이 협력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창조산업 개발과 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 2012년 문화·창조산업 36,400명 고용 창출, 창조직업 성장 프랑스에서 제2위 - 낭트시는 프랑스와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

평가는 낭트가 프랑스의 다른 도시(보르도, 툴루즈, 몽펠리에, 스트라스부르)에 비해 기후가 습하고, 건축 유산(브르타뉴 공작성에도 불구하고)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외부로부터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낭트 사례는 처음에 플로리다 모델로부터 착상을 얻고자 하였고, 일드낭트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플로리다 모델에 의거하여 평가를 하여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개념에 바탕을 두었지만 창조지구의 조성 과정에서 창조적 관점이 일부 수정되었다. 낭트시는 소수의 창조계층을 위한 높은 수준의 문화 활성화가 아닌 일반적 시민을 대상으로 낭트의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현실적이면서 고차원적 가치로 승화시키되 역동적 협동 작업에 초점되면서 도시와 문화 프로젝트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낭트는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유럽 프로젝트 참여와 더불어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참조하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낭트 고유의 모델을 모색하였다(Kpahi et Mella, 2014: 34). 플로리다의 주장처럼 창조성은 소수의 창조계급에서 계층을 따라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구성된 유기적 사회 관계망에서 비롯된다. 엘리트 계층 중심의 정책은 경제사회적 양극화, 주택의 부족, 지역 간 격차 심화, 스트레스와 좌절감 등을 초래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단기적 경제성장에 치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플로리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창조도시론은 첨단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문화적 배경이나 본래 도시의 창조산업과 상당히 거리가 있고,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며, 국가 수준이나 지역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Pratt, 2008: 107-117).

낭트의 창조도시정책과 사업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낭트는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 낭트

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하여 역동성과 독창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창조도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SAMOA는 각종 사업을 독특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련 공적 주주들(낭트대도시연합, 낭트시, 도의회, 도시공동체, 레지옹의회 등)이 재정 지원을 하였다. 특히 활발한 문화 활동을 통해 도시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고, 다양화고도 밀집된 문화 공급과 선도적 창조도시사업의 추진, 문화 활동 및 공간에 대한 주민의 광범위한 접근 등이 성공적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창조도시의 유형과 사례는 일반화할 수 없으며, 획일성에서 탈피해야 하고, 각 도시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낭트의 창조도시사업은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확한 목표와 역동적 협동 작업에 초점을 두면서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창조도시사업은 도시와 문화 프로젝트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고, 관련 도시들과 협력체를 구성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착상을 얻고, 지방 및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활동 영역과 방식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도시권 차원의 추진기구(낭트권경제발전사업단, 낭트메트로 폴개발 등)를 설립하고, 점진적으로 개편하였다.

셋째, 낭트 창조도시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창조산업·창조공간·창조인력의 긴밀한 연계에 역점을 두었다. 즉 낭트는 쇠퇴한 지구의 재생을 위해 건물이나 공간을 창조적으로 바꾸고,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을 창출 또는 유치하였다. 단순한 전면 재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건물이나 공간을 재활용하면서 도시발전을 도모한 점은 시사점을 준다. 즉 우리나라 창조도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장기제(growth machine)에 의지하거나, 창조적인 사람(creative class)들만 많으면 우리의 도시가 바

로 빠르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남기범, 2014: 26)은 주목된다.

넷째, 대학들은 창조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통합적 연구연맹을 구성하여, 파트너십 교육과 각종 사업을 실험하고 협력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창조도시사업의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

- 1) 사업은 유네스코 등에서 시작된 창조도시 개념에 기초하여 이를 지역정책 차원으로 확장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 제고와 지역에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2011년 13개 사업, 2014년까지 74개 사업에 544억 원이 지원되었다(임상오 외, 2014: 9; http://www.region.go.kr/pds/info_read.php?page=4&b_id=3202&kind=1).
- 2) 낭트는 넓게 보면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또는 métropole로 표기)로서 24개 코뮌으로 구성되는 코뮌간 협력체(intercommunalité)이며, 프랑스 전체에서 6번째로 크며, 서부지역(Grand Ouest)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communautés urbaines’은 도시공동체로 번역되는데 주로 대도시를 대상으로 있어 대도시공동체로 표기하였다. ‘métropole(메트로폴)’은 프랑스에서 대도시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거나 대도시권 단위의 협력을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되었다. 낭트도시권의 경우 ‘communautés urbaines’와 ‘métropole(메트로폴)’은 대도시공동체 의미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2010년 12월 16일의 지방자치단체개혁법(loi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은 ‘métropole’을 대도시권 협력의 법적 단위로 새로이 규정하였기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도시연합’으로 구별하여 표기하였다(배준구, 2014: 500-501).
- 3)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산업 개념은 전통적인 문화산업뿐 아니라 창조산업의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화산업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4)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1월 현재 27개 레지옹(본토 22개), 101개 데파르트망(본토 96개), 36,774개 코뮌(본토 36,529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토의 레지옹은 2016년 1월 1일부터 22개에서 13개로 통합(평균 인구 약 500만)되었는데

낭트시가 소속된 페이드 라 르와르(Pays de la Loire) 레지옹은 통합되지 않았다.

- 5) 르 포엥은 교통, 고용, 주거, 교육, 경제, 매력, 문화시설, 자연환경 등 11개 주제(85개 세부 항목)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프랑스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0개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낭트시는 프랑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이다(Sagot-Duvarox, 2010: 1; <http://www.lepoint.fr>).

참고문헌

- 남기범, 2014, “창조도시 논의의 비판적 성찰과 과제,” 도시인문학연구 6(1), pp.7-30.
- 남기범·송정은, 2014, “창조경제정책 논의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632-645.
- 노준석·정미경·박현아, 2013, “세계 창조산업 전략과 시사점(1): 20개국 및 국제기구들의 개념과 범위 비교 중심,” 코카포커스 71, pp.1-24.
- 문미성, 2014, “창조경제와 지역: 창조도시의 세 가지 원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646-659.
- 배준구, 2014, “프랑스의 도시간 협력: 낭트 도시권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4),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 pp.499-521.
- 사사키 마사유키 저, 정원창 역, 2004, 창조하는 도시: 사람 문화 산업의 미래, 소하.
- 신동호, 2009, “창조도시론,” 축제로 만드는 창조도시, 신동호 외 8인 공저, 서울: 한울아카데미, pp.11-33.
- 이병민, 2014, “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과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pp.51-67.
- 이병민, 2014, “창조경제시대 도시재생의 방향전환과 과제,” 도시인문학연구 6(1), pp.41-49.
- 이종호, 2014,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에 관한 경제지리학적 검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624-631.
- 임상오, 2008, “창조도시 진흥을 위한 창조산업 활성화 전략,” 국토 322호, pp.16-23.
- 임상오·신두섭·오남숙, 2014, “창조도시의 모범 사례와 정책 과제: 한국의 창조지역사업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6(3), pp.61-81.

- 최병두, 2014, “한국의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과 담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601-623.
- 한상진, 2008, “사회적 경제 모델에 의거한 창조 도시 담론의 비판적 검토,” *환경사회학연구* ECO 12(2), pp.185-206.
- Barthel Pierre-Arnaud, 2009, “Faire la preuve de l’urbanisme durable: Les enjeux de la régénération de l’île de Nantes,” *Vertigo-la revue électronique en sciences de l’environnement* 9(2), pp.1-22.
- Béraud Philippe et Coremerais Franck, 2012, “Industries créatives, industries de territoire: la géographie culturelle d’une métropole régionale,” *Communication et organisation* 42, pp.203-216.
- Caro Olivier, 2012, “Nantes: Le grand mix,” *La ville des créateurs*, Terrin Jean-Jacques, Marseille: Parenthèse, pp.134-157.
- Chevalley Céline et Kottelat Martin, 2014, “Le patrimoine industriel et maritime dans les projets urbaines de l’île de Nantes,” *Etude de terrain, Politiques culturelles et développement urbain de la ville Nantes*, Université de Neuchatel-Institut de géographie, pp.7-26.
- Delavaud Laura, 2007, “Espace politique/espace culturel: les intérêts d’une alliance, L’art contemporain à Nantes,” *Terrains et travaux* 13, pp.136-148.
- Florida, Richard,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 Jacobs Jane, 1985,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 Principles of Economic Life*, Vintage.
- Kpahi Varérie et Mella Morgane, 2014, “Nantes et son Quartier de la Création: une Stratégie qui Voyage,” *Etude de terrain, Politiques culturelles et développement urbain de la ville Nantes*, Université de Neuchatel-Institut de géographie, pp.27-29.
- LaDécouverte, 2004, *L’état des régions française*, Paris: La Découverte.
- Landry, Charles,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Routledge.
- Landry, Charles and Franco Bianchini, 1995, *The creative city: Demos*, Comedia.
- Landry, Charles and Jonathan Hyams, 2012, *The creative city index: Measuring the pulse of the city*, Comedia.
- Léderrey Megane, 2014, “Le Karting: Les effets de la proximité géographique,” *Etude de terrain, Politiques culturelles et développement urbain de la ville Nantes*, Université de Neuchatel · Institut de géographie, pp.40-52.
- Pratt, Andy C., 2008, “Creative class: the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reative class,”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90(2), pp.107-117.
- Sagot-Duvauroux Dominique, 2010, “La scène artistique nantaise, levier de son développement, économique,” *Nantes la Belle Eveillée, le pari de la culture*, Les Editions de l’attribut, pp.95-107.
- Scott, Allen. J., 1984, “Territorial reproduction and transformation in a local labor market: The animated film workers of Los Angel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2*, pp.277-307.
- Scott, Allen. J., 2010, “Cultural economy and the creative field of the city,”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92(2), pp.115-130.
- Vivant Elsa, 2009, *Qu’est-ce que la ville créative ?*, Paris: PUF, p.39.
- <http://www.francecreative.fr/essentiel/emploi/>, 2016년 9월 25일 검색
- <http://www.frenchmoments.eu/nantes-pays-de-la-loire/>, 2016년 9월 25일 검색
- <http://www.iledenantes.com>, 2016년 6월 20일 검색
- <http://www.inaglobal.fr/economie/article/les-villes-francaises-sont-elles-creatives>, 2016년 8월 10일 검색
- <http://www.lepoint.fr>, 2016년 5월 3일 검색
- http://www.nantes-developpement.com/files/faits_et_chiffres2012, 2016년 7월 10일 검색
- <http://www.nantes.fr>, 2016년 10월 5일 검색
- <http://www.nantesmetropole.fr> Newsletter No.3, 2016년 8월 10일 검색
- <http://www.nantes-tourisme.com>, 2016년 9월 25일 검색
- <http://www.nantesmetropole.fr/la-metropole/capitale->

verte-europe-2013/la-ville-creative-devel
opment-durable-63285.kjsp?RH=green_capital,
2016년 9월 20일 검색

http://www.region.go.kr/pds/info_read.php?page=4&b_id=3202&kind=1, 2016년 9월 5일 검색

<http://www.samoa-nantes.fr/en/>, 2016년 10월 5일 검색

교신: 배준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
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전화: 051-663-4525, 이
메일: jgbae@ks.ac.kr

Correspondence: Jun Gu Bae, School of Law, Public Ad-
ministration and Politics, Kyungsung University,
309, Suyeong-ro, Nam-gu, Busan, 48434, Rep.
Korea. Tel: 82-051-663-4525, E-mail: jgbae@
ks.ac.kr

최초투고일 2016년 10월 29일

수정일 2016년 11월 14일

최종접수일 2016년 11월 17일